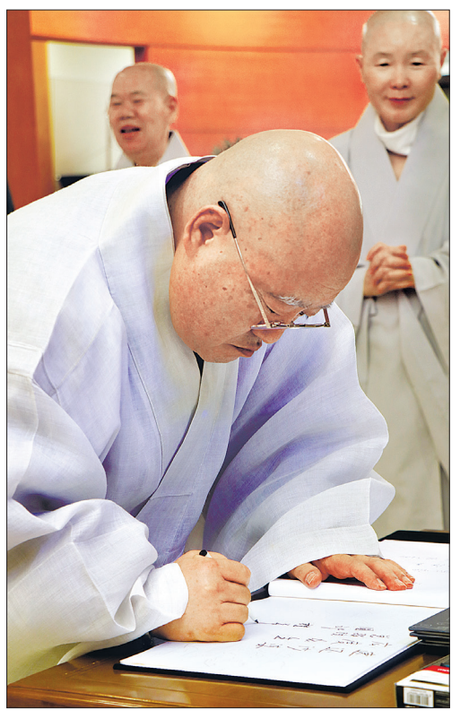

조계종 고사위원장 지안 스님이 스승을 잃어 슬픔에 빠진 정목 스님을 위로하고 있다.

“모두에게 베풀었던 완전무결한 수행자”

원행 스님 등 주요인사 조문 잇달아


광우 스님과 대행 스님의 인연으로 한마음선원 스님과 신도들이 빈소를 찾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빈소를 찾아와 조문,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한국불교 비구니계 원로이자 비구니 최초 명사 법계를 품수한 태허당 광우 스님이 7월 18일 법랍 80세, 세수 95세로 원적에 든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다.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광우 스님의 빈소에는 7월 19일부터 조계종 스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가장 일찍 조문을 다녀간 스님은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었다.

분향을 마친 뒤 식장을 나온 정우 스님은 “특별한 인연은 없었지만 스님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산 어른으로 기억하고 있다. 일찍이 서울에 오셔서 정각사에서 비구니스님들의 권익향상에 애쓰셨다”고 광우 스님을 추모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무를 뒤로 하고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원행 스님은 광우 스님 제자인 정목 스님에게 “비구니계 큰 어른께서 입적하셔서 상심이 클 것 같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에 정목 스님은 “입적하실 때까지 큰 고통 없이 계시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 종무로 바쁘실텐데 이렇게 조문을 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빈소에는 생전 광우 스님과 각별한 인연을 쌓은 스님들이 찾아와 문중을 위로하고, 인연담을 전하며 광우 스님의 유지를 잘 이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은 1970년대 문학을 공부하던 스님들을 정각사로 초대해 만찬을 제공해준 광우 스님의 품 넓은 마음씨를 높이 기렸다. 성우 스님은 “1972년에 오현 · 정휴 스님 등 당시 문학에 심취한 스님들을 광우 스님이 초대했다. 그저 문학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접하기 위해서였다”면서 “먹을거리가 넉넉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광우 스님은 정말 좋은 음식들을 제공해주셨다. 문학과 예술에 참 관심이 많은 스님이자 대장부였다”고 회상했다.

그러자 정목 스님은 “은사스님께서 돌아가시기 10년 전쯤부터는 삼베에 풀칠한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우셨다. 누군가가 오래 전에 혼났던 얘기를 꺼냈더니 은사스님께서는 마음 아프게 해 미안하다며 사과도 하셨다”고 말했다.

대강백이자 고시위원장인 지안 스님도 광우 스님의 빈소에서 오래 전 일화를 소개하며, 광우 스님을 ‘밀행으로 보살도를 펼친 수행자’라고 평가했다.

지안 스님은 “한번은 내 상좌가 공부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광우 스님이 직접 나를 보러 동국대에 찾아왔다. 스님은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좌 잘 키우라며 100만원을 주고 가셨다”면서 “보살의 화신 같은 분이었다. 친소관계 없이 공부하는 이에게 늘 베푸셨다. 평소 문상을 잘 안 다니지만 광우 스님은 마음 속 깊이 존경하고 있어 찾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안 스님은 “아마도 광우 스님 같은 분은 다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제자들에게 광우 스님처럼 완전무결한 수행자로 살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산증인이자 최고 어른으로 손꼽힌 광우 스님의 원적 소식이었지만 빈소에는 슬픔보다 아련함, 그리고 존경심이 자리를 대신했다. 빈소를 찾은 스님들은 애통함을 표하지 않고 광우 스님의 제자들에게 “큰스님 유지를 잘 따르라”는 당부를 남겼다. 무엇보다 광우 스님 제자들이 빈소에서 놀란 것은 제자에게 말하지 않은 광우 스님의 보살행이 조문객마다 있었다는 점이다.

정목 스님은 “많은 스님들께서 은사스님 빈소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소중한 일화들이 있었다는 게 큰 감동”이라며 “한결같이 ‘광우 스님처럼만 살아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제자들이 은사스님 유지를 받들어 참된 수행자로서 더욱 정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행 선사와 깊은 교류를 나눴던 광우 스님을 추도하기 위해 한마음선원 스님과 신도회 임원들도 분향소를 찾았다. 이날 조문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박종수 현대불교 신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스님들은 선법가 ‘대장부’ ‘푸르게 살라’를 음성공양 올렸으며, 정목 스님의 요청으로 영결식에서도 선법가를 음성공양 했다.

한편 이날 빈소에는 원로의원 일면 스님,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 前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과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변영섭 前문화재청장 등 많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조문을 다녀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내가 만난 광우 스님

무모한 도전의 바람막이 돼 주신 어른



본각 스님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나는 태허당 광우 명사 스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와 존경이라는 두 단어를 함께 떠올린다.

스님을 가까이 찾아 뵌 것은 1982년 일본으로 유학의 길에 오르면서다. 평소 친밀하게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비구니계의 어른이시고 유난히 공부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와서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서였다. 처음 정각사 골목길을 내려가면서 평소에 잘 모시지도 않았던 어른을 찾아뵙는다는 것이 좀 서먹한 생각도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대문을 들어섰다.

잠시 뒤에 근엄하시면서도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자리하고 앉으셨다. 그렇게 가까이는 처음 찾아뵌 젊은 학승(學僧)을 어루만지듯 다독이듯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인사를 올리고 일어서는 내손을 잡고 다시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잠시 뒤 학비와 미국화폐 100달러를 내 손에 쥐어 주시면서 외국에 가는 사람에게 외국 돈이 적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나서 외국돈을 본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100달러는 외국유학을 준비하면서 막연하게 학비를 걱정했던 마음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마치 부적과도 같은 큰 힘을 느끼게 했다. 생전에 이 말씀을 올리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한국에 나올 때는 꼭 들르라는 말씀을 따라서 꼭 인사를 올렸고 학비를 보태주셨다. 크신 자비와 격려에 이제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두 번째는 태허당 광우 명사 스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내가 2002년에 대만에서 개최된 제7차 샤카디타(Sakyadhita)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가하고서 제 8차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온 일 때문이었다.

나는 세상을 너무나 단순하게 살아온 허물이 있다. 비구니 스님들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한국비구니연구소’를 만들었고 그 인연으로 석담 스님과 조은수 교수의 권유에 따라 샤카다타 8차대회를 한국에 유치해온 것이다.

막상 대회 유치의 깃발을 들고 와서 보니 전국비구니회와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독단으로 샤카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를 받아온 셈이 되어 버렸다. 그때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폭포수처럼 받을 수밖에 달리 길이 없었다. 나의 무모함을 절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던 것이다.

대회가 개최될 시기에 광우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장을 내려놓으실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로 밑거름이 되어 주셨다. 광우 스님과 회장직을 이어 받으신 운문사 명성 명사 스님, 그리고 진관사 진관 원로 스님이 그 때 보살펴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했을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 무모한 짓이었던 제8차 샤카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공로를 세 분의 어른 스님께 올린다. 그리고 회장직을 물러나시면서 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광우 명사 스님은 참으로 덕인(德人)이시고 대인(大人)이셨다. 나에 대한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넓은 가슴으로 막아주셨고 방법을 몰라서 당황할 때 길을 가르쳐 주신 어른이셨다. 제8차 샤카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서 한국불교는 세계불교, 특히 세계여성불교에 눈을 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예를 올린다. 다시 사바세계에 몸을 나투시어 미래 한국불교의 큰 언덕이 되어주시기를 향을 사르고 청원하는 바이다.

‘훤훤장부’ 같던 스님, 감사합니다



맹난자
수필가

광우 스님을 처음 뵌 것은 1958년 여름, 보문사(탑골승방) 남별당에서였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나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를 알아와 발표하라는 세계사 선생님의 숙제를 안고 일조 스님을 찾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속 시원히 일러줄 분이 올 테니….” 나는 무작정 그 분을 기다렸다. 저녁때가 되자 양복차림의 훤칠한 남자 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났다. 동국대 불교학과 재학생이던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이광우(李光雨)스님이었다. 다생의 인연이 지중했음인가. 광우 스님이 정각사(삼선교 소재)를 짓던 그 해에 우리 집은 절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남별당 스님께 이 소식을 듣고 친구와 둘이서 절을 찾았다. 나는 교복을 벗은 대학생이 되었고 스님은 남장 차림의 양복이 아닌 먹물 옷을 입고 계셨다. 삭발로 드러난 둥그스름한 두상과 온화한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다. 1960년 이것이 광우 스님과의 두 번째 재회였다.

스님의 서가에서 김동화 박사가 쓴 〈불교학개론〉을 빌려다 읽기 시작했다. 당시는 실존주의 사상이 풍미하던 때라 카뮈나 사르트르를 읽어야 행세깨나 하는 줄 알던 때였다. 마침 이화대학 〈교양국어〉 책에서 만난 ‘실존주의와 공(空)사상’에 관한 박종홍 교수의 글은 마른 짚단에 불을 긋듯 내 가슴에 옮겨 붙었다.

실존철학에 관해 하이데거에게 물으러 갔더니 〈금강경〉을 보라는 그분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돌아와 서양철학자인 선생이 〈금강경〉을 공부하였다는 그 요지를 간추려 15부나 손으로 써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지 않겠느냐?는 취지문을 각 대학교 철학과, 국문과, 심리학과 등에 보냈다.

단층 양옥이던 정각사 다다미방은 대학생들로 꽉 찼다. 마침내 김동화 선생님을 모시고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실험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걸 아시는 선생님께서 〈유마경〉은 희곡적이라며 그 다음은 〈유마경〉을 공부하자고 하셨다.

〈법화경〉은 홍정식 선생님께서 맡아주셨고 원의범, 황성기, 이영무, 이재창 선생 그리고 미국서 막 귀국한 김용정 선생을 모시고 ‘과학과 불교’ 등 사이사이 돌아가며 특강을 듣도록 해주셨다. 정각사 법당은 한국불교의 산실이며 불교문학의 요람이었다. 문인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김구용 선생의 『벽암록』 강의는 법당 안을 환희심으로 넘쳐나게 했다.

정각(正覺)을 주창하는 정각사에서는 ‘바로 알고 바로 행해 참사람 되자’는 정신(正信) · 정행(正行)을 근본으로 삼아 ‘신행회’를 설립하고 〈신행회보〉를 펴 내기에 이르렀다. 1969년 2월의 일이다. 내가 그 날짜를 기억하는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병원에서 돌아온 첫아이는 밤에 열이 40도에 육박했다. 조산한 아이를 안고 나는 부처님께 간구 드렸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10년을 당신을 위해 종질이라도 하겠다’ 고.

그 다음 날 광우 스님께서 아기를 보러 우리 집으로 건너오셨다. 스님은 서윤길 학생이 등사판을 긁어 소식지를 만들어왔는데 중단되었으니 그걸 나더러 맡아달라는 말씀이었다. ‘그래! 이거로구나’ 하고 부처님께 약속드린 10년을 그 일에 바쳤다.

광우 스님의 원력으로 제호를 〈신행불교〉로 바꾸면서 문서포교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그 시대에 작은 등불의 역할이나마 감당해 왔다고 자부한다. 작지만 알찬 책이었다. 10년을 봉직하는 동안 신문이나 불교잡지에서 청탁서가 왔고 글을 보내면 이름 아래 ‘수필가’라는 호칭이 붙었다. 이름의 도(盜)가 되지 않으려고 나는 노력해서 수필가가 되었다. 만약 스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스님은 말없이 나를 불교로 이끈 인로왕보살이셨다. 때로는 스승이요, 때로는 자애한 어머니같이 60년이란 세월을 함께 했다.

1961년 동국대에서 판토마임 연극을 발표했을 때 갑자기 스님께서 참석해 주신 일, 신문로에 사는 스님의 동창생 집으로 데리고 갔을 때 거기서 듣던 일본 노래 ‘가래 스즈끼’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칠석날 저녁, 정각사 마당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함께 부른 이 노래. “어처피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꽃을 피우지 않는 마른 갈대다” 초가을 저녁, 나는 꽃의 은유를 감상적으로 아껴가며 좋아했었다. 그러나 광우 스님은 ‘우담바라회’를 이끌며 꽃을 피워내셨다. 비구니 스님들의 전당인 전국비구니회관을 이룩해내었고 서울시립목동청소년회관 관장 재임 시에는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사람이 교육문화과 과장으로 스님을 보필할 수 있었던 것도 불연(佛緣)이다.

아침 조례 때 뵙던 스님은 60년 전, 훤훤장부와도 같았다. 공(公)을 위해 사(私)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무상해 육탈된 모습으로도 깊은 선정(禪定)에 드신 듯, 흐트러짐 없는 수행자의 모습에서 나는 더 큰 무언(無言)의 가르침을 받곤 했다.

스님, 어디에 계십니까? 두 손을 모우고 사방을 둘러본다.

훈훈한 자비의 法雨를 내려주십시오



미산 스님
상도선원장, 카이스트 교수

광우(光雨)스님.

현대 한국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큰 원력을 가지셨던 어른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법당 불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재를 키우는 불사’입니다.”라는 스님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1980년대 초 제가 동국대 선학과에 다닐 때 매주 마다 스님을 뵐 수 있는 인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각사에서 주는 수석 장학금을 받은 것을 계기로 청년법회 지도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법회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따뜻한 점심 공양을 함께 하시곤 했습니다.

때로는 현대불교학의 석학 뇌허 김동화 박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모임에 일부러 저를 참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명한 현대 학승과 불교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체계적인 불교학을 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사회와 불교계에는 개혁을 열망하는 대중들이 연일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종단 개혁을 외치며 단식 농성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장병으로 몸이 몹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스님께서 정성스레 돌보아 주신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 개혁은 외적인 행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재를 키우고 보살피는 일을 통한 내적 개혁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스님의 따스한 보살핌으로 영국에 유학할 용기를 갖게 되었고, 학업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우 스님. 지금 한국불교의 교육 인재 불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스님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스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시는 이 시점에 세상은 더욱 숨 가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최첨단 디지털 문명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큽니다. 인공지능, 로봇, 가상 · 증강 현실, 빅데이터 등 기존의 상식과 종교의 교의를 뛰어넘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 줄 수 있는 탁월한 인재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스님께서는 평생 〈법화경〉을 신수봉행(信受奉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법을 설하신 진정한 의도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일체중생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스님,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시어 맑고 향기로운 지혜와 따스하고 훈훈한 자비의 법우(法雨) 내려주십시오. 스님의 법화행화(法華行化)가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천동굉지(天童宏智) 선사의 선시(禪詩)를 삼가 영전에 분향하고 올립니다.

자비방편사(慈悲方便事)
자비심 가득한 방편 교화가
촉처유공부(觸處有工夫)
닿는 경계마다 공부로 피어나고
응변수성색(應變隨聲色)
소리와 형상 따라 응하여 변화하니
단단반주주(團團盤走珠)
둥근 쟁반 위에 구슬 알알이 구르네